

배포일시	2019. 9. 27. (금) 11:00 (총 3매)	보도시점	즉 시
담당부서	기상서비스진흥국 기상융합서비스과	담당자	과장 신언성 사무관 황정철
		전화번호	02-2181-0904 02-2181-0928

초고해상도 기상정보로 농림분야 기후변화 대응 강화!

- 기상청, 농촌진흥청·산림청과 함께

“농림기상 공동 협력 활성화 기술 공유 워크숍” 개최 -

□ 기상청(청장 김종석)은 9월 25일(수)부터 26일(목)까지 국립기상과학원(제주)에서 10개 기관*이 한자리에 모여 “농림 기상 공동 협력 활성화 기술 공유를 위한 워크숍(공동연수)”을 개최했다.

*△기상청(국립기상과학원·한국기상산업기술원·국가농림기상센터) △농촌진흥청(국립농업과학원·농업기술실용화재단) △산림청(국립산림과학원·한국임업진흥원)

○ 기후변화 영향의 가장 취약분야인 농림피해예방 서비스 선제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농림 기상업무를 활성화하고자 마련되었다.

□ 이번 워크숍에서는 농림기상 분야 실용화 개발기술의 부처간 공유 및 공동협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.

○ 주요 내용으로는 △기후변화 시나리오 산출 및 생태계 변화 대응 연구 △예측모델 개발을 통한 재해재난 대응체계 구축 분야 △관측자료 공동 활용 및 데이터 품질향상과 실용화 기술 개발 △농업·산림·기상 관련 다 부처 공동 연구 추진에 대해 협의했다.

- 특히, 국립기상과학원은 농림 분야 기후변화 공동 대응을 위해 국지 예보모델 기반 기상요소를 100m 격자 간격으로 규모 상세화한 기상정보를 소개해 주목받았다.
 - 이 정보는 관측 공백 지역의 농작물 재해를 경감하고, 산불 확산 예측에 활용하여 실효성 있는 농림 기상서비스를 위해 폭넓게 응용될 전망이다.

- 김종석 기상청장은 “이번 워크숍을 통해 3개 청이 공동 협력하여 농림 기상 기술이 국가 차원의 기후변화 공동 대응 생태계구축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.” 라고 밝혔다.

- 붙임: ‘농림 기상 공동 협력 활성화 기술 공유 워크숍’ 사진